

남해에 '거북선모양 여객선' 띄운다

2009년부터 여수~남해 앞바다 운항 협약 체결

여수엑스포 유치·광양만권 특화 민·관프로젝트

오는 2009년부터 거북선형 여객선에서 여수와 경남 남해 앞바다 풍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학행)은 20일 상황실에서 (주)일상(대표이사 홍선표)과 '거북선형 여객선 운항 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거북선형 여객선 건조 및 운항 사

업은 일상과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이 2012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와 광양만권 관광 특화를 위한 민·관 합작 투자 프로젝트다.

일상은 오는 2009년 상반기까지 110억원을 투자해 230명이 승선할 수 있는 300t급 거북선형 고급 여객선 2척을 건조한다.

일상은 오는 12월까지 선박 선행을

공모하는 등 기본 설계에 착수해 내년 3월 선박을 발주할 예정이다.

거북선형 여객선이 건조되면 오는 2009년 2월부터 소호동 오션리조트 앞바다 전용부두를 출발해 오동도 엑스포 부지를 거쳐 광양항~ 포스코~남해를 운항하게 된다.

특히 이사업은 2012세계박람회와 광양항을 긴 남해안의 홍보 효과를 물론 기존 투자사업과 연계해 여수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여수시 소호동에 오션 리조트특구를 건립하고 있는 일

상은 화양면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해양관광단지 타운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본사를 여수로 이전했다.

조학행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해양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특히 남해안 지역의 관문인 광양항과 이순신장군의 애국 혼을 흥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관광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두륜산에서 보이는 한라산

해남군 두륜산에서 한라산이 카메라에 잡혔다. 향토사학자 천기철(49)씨는 "지난 17일 청명한 날씨 덕분에 두륜산에서 일 년에 열흘 정도 보인다는 제주도 한라산과 섬 전체를 보는 행운을 안았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두륜산 고개봉(해발 638m)에서 찍은 이 사진 중앙에는 한라산, 오른쪽으로 완도 소안·노화도, 보길도가, 왼쪽으로 상항봉이 보이고 있다. 천씨는 "지금까지 두륜산을 600번 정도 올랐는데 15년 전에 두륜산 가련봉에서 한라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이후 이번이 두번째"라고 밝혔다.

/연립수스

해남군 두륜산에서 한라산이 카메라에 잡혔다. 향토사학자 천기철(49)씨는 "지난 17일 청명한 날씨 덕분에 두륜산에서 일 년에 열흘 정도 보인다는 제주도 한라산과 섬 전체를 보는 행운을 안았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두륜산 고개봉(해발 638m)에서 찍은 이 사진 중앙에는 한라산, 오른쪽으로 완도 소안·노화도, 보길도가, 왼쪽으로 상항봉이 보이고 있다. 천씨는 "지금까지 두륜산을 600번 정도 올랐는데 15년 전에 두륜산 가련봉에서 한라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이후 이번이 두번째"라고 밝혔다.

/연립수스

장흥 천관산 탐산사 지표조사 용역 실시

한반도 불교 도래지 연구조사 착수... 郡, 불교성지 개발

장흥 천관산 탐산사에 대한 지표조사 용역이 실시된다.

장흥군은 최근 한국기록원이 밝힌 동문선(東文選)의 '천관산기(天冠山記)'와 보물 제523호로 지정된 '석보상절(釋譜詳節) 제 23권, 24권' 등에 언급된 탐산사 기록들을 토대로 한반도 불교 도래지 등과 관련된 연구조사에 착수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최근 탐산사가 불교 최초 도래지이며 부처님의 진신 사리가 봉안된 곳이라는 문헌과 기록이 발견돼 이들 기록과 탐산사의 구

체적인 연관성에 대한 연구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기 800년 통일신라 애장왕 때 창건된 탐산사는 인도의 아소카왕이 이곳에 보탑을 세워 부처의 사리를 봉안했다고 설화로 전해지지만 구체적인 문헌기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장흥군은 이에 따라 동문선과 석보상절 등의 문헌에 근거해 지표조사를 실시한 뒤 체계의 연구와 검증작업을 거쳐 탐산사 일대를 불교성지로 개발하고 국내외에 홍보할 방침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나주·화순 교통사고 다발지역

너릿재 터널부근 등 10곳 선정

화순 너릿재 터널 부근 등 나주와 화순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10곳이 선정됐다.

나주소방서(서장 이재명)는 추석을 앞두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나주시·화순군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10곳을 선정했다.

지난해 구조·구급활동을 기준으로 선정된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화순군 너릿재 터널 부근을 비롯해 ▲화순군 대리사거리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사거리 ▲화순군 청풍면 곰치재에

서 장흥방향 도로 ▲화순군 이양면 금능삼거리 ▲화순군 도곡 온천앞 도로상 ▲화순군 화순에서 별교간 도로(외곽도로) ▲화순군 남면 사평에서 동북간 도로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효사랑병원앞 도로상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축협인근 도로상 등이다.

한편 나주소방서는 교통사고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2일부터 26일까지 기차역, 시외버스터미널 등에 119구급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나주=정철형기자 chjung@

예쁘고 깔끔한 송편 만들어 보세요

농업박물관 추석연휴 이틀간 체험행사

전라남도 농업박물관(관장 강석오)이 추석연휴 기간인 오는 24·25일 이틀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송편 만들기 체험행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들은 농업박물관이 준비한 팔과 밥, 잣 등 5종류의 재료로 송편을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하게 된다.

또 행사장에 도우미 3명을 배치해 체험 참가자들이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송편을 찌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한편 오는 23일 오후 박물관 야외전시장에서는 전통혼례식이 열린다.

개관 14주년을 기념하고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미뤄온 미혼 동

거부부를 초청해 치르는 이날 전통 혼례의 주인공은 김정호(85·광주시 남구·전정남(81)씨 부부. 이날 전통혼례는 공연단체인 극단 갯돌의 진행으로 고증을 통해 확인된 옛 방식을 토대로 흥겨운 공연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한복을 입고 입장하는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주암댐 방류로 농경지 침수 피해"

곡성 석곡·죽곡면 이장단 등 수자원공사에 보상 요구

곡성군 주민들이 주암댐 방류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곡성군 석곡면과 목사동면, 죽곡면 이장단과 소방대, 청년회 소속 50여명은 19일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관리단을 향의 방문했다.

이들은 "주암댐 관리단이 지난 15

일 예고도 없이 주암댐 물을 초당 2천t씩 방류 석곡면과 목사동면, 죽곡면 논과 밭 수백 ha가 침수됐다"고 주장했다.

곡성군 관계자도 "15일 오전 7시32분께 주암댐 관리단으로부터 초당 방류량을 1천t에서 2천t으로 늘리겠다고 통보를 받고 '피해가 예상되니 방

류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암댐 관리단 관계자는 "당초 120mm의 비가 올 것이란 기상예보를 토대로 댐 수위를 조절했는데 예보와 달리 260mm나 내려 댐 안전 관리상 초당 방류량을 늘릴 수 밖에 없었다"며 "농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제 410주년 명량대첩제' 열린다

내달 26~28일 우수영 일대 삼도 수군 통제사 입성식도 포스터 나호준씨 작품 선정



'제 410주년 '명량대첩제'가 오는 10월 26일부터 3일간 우수영 일대에서 펼쳐진다.

'들리는가? 울돌목의 북소리가!!'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첫째 날 '대동의 날' ▲둘째 날 '기쁨의 날' ▲셋째 날 '평화의 날' 등 3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삼도수군 통제사 입성식을 비롯해 명량대첩 당시의 해상전투 재현과 조선 수군의 관육선이 특별 건조돼 우수영 앞바다에서 위용을 드러낸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거리체험,

대나무 활쏘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 포스터는 20점의 공모작중 명량대첩전에 임하는 이순신 장군의 굳은 의지를 형상화한 나호준(22·서울)씨 작품<사진>이 선정됐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광양 이팝나무 명칭 변경 '광양읍수와 이팝나무'로

천연기념물 제 235호인 '광양 유당공원의 이팝나무' 명칭이 '광양읍수와 이팝나무'로 변경되고 면적이 확대된다. 또 천연기념물 제 366호인 '담양 관방제림'도 지정 구역이 10만2천921㎡에서 12만3천173㎡로 늘어난다. 문화재청은 19일 광양 유당공원의 이팝나무 지정명칭을 '광양읍수와 이팝나무'로 변경하고 지정구역을 확대했다.

'광양읍수와 이팝나무'는 조선 명종2년(1547) 광양현감 박세후가 읍성을 쌓은 뒤 바다에서 보이지 않도록 숲을 조성하면서 늪에 못을 파고 수양버들과 이팝나무 등을 심으면서 유래한다.

문화재청은 이팝나무와 함께 유당공원 숲과 인서리 숲도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으로 확대했다.

'담양의 관방제림'은 1648년 제방을 수축하면서 수해방지 목적으로 조성한 숲으로 1991년 제방지역의 숲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가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아산화, 고추틴크, 계피, 육두구, 현호석, 정향, 창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침부름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의 상의하십시오. | 광고심의번호 028-0200

“저도 가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겉지고 뒤든지 다 소화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가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채표 가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